



미디어/엔터

과한 주가 하락, 이유가 있지 않을까?

미디어/엔터 이현지 hjlee1@eugenefn.com

1) 실적 미스가 이렇게까지 주가 하락으로 연결된다고?

전일 하이브 주가 4.4%, 에스엠 2.6%, 와이지엔터 1.3%, JYP Ent. 9.3% 하락. 섹터 흐름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유독 JYP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배경으로는 1) 높아진 기대치를 하회한 실적, 2) 한한령 해제 기대감 소멸의 두 가지 이유로 판단

우선 1) 실적부터 생각해 보면, JYP Ent. 4Q24 영업이익은 369 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 (389 억원)를 소폭 하회함. 숫자로만 보면 크게 하회한 것은 아닌데 주가가 유독 과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에스엠을 시작으로 주요 엔터사의 4 분기 실적이 모두 발표되었는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던 하이브를 제외하고 에스엠과 와이지엔터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탓에 JYP 도 비슷한 기대감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 다만 하이브의 사례를 참고했을 때, 실적은 부진했으나 일회성 성격의 비용일 경우 분 위기 반전 가능. 3/17 일 예정된 실적 발표에서 세부 내용 주목할 필요 있음

2) 그럼에도 중국은 살아있다

지난 두 달 동안 엔터 섹터의 주가를 견인했던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중국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판단. 특히 연초부터 문호 개방에 힘을 실어주는 기사들이 다수 쏟아지며 엔터 섹터에 우호적인 외부환경이 조성되었는데, 시점이 불투명해지며 관련 기대감이 같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 물론 단기적으로는 모멘텀 소멸로 볼 수 있지만, 최근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이 중국 본토 지역에서 정식 개봉되기도 하고 작년 11월부터 K-Pop 아티스트의 팝업스토어가 중국 본토 지역에서 다수 진행되기도 하는 등 여전히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는 판단. 중국 시장 개방 시 공연에서의 업사이드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

잠시간의 숨 고르기 시간이 필요하지

단기 모멘텀 소멸로 당분간 주가는 조정 구간을 거치겠으나 엔터사 4 분기 실적 발표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공연과 MD 매출의 서프라이즈. 이제 슬슬 주요 아티스트의 컴백이 돌아오고 있으며, 스타다움에 입성하는 아티스트가 많아지는 한편, MD 매출은 매 분기 경이로운 숫자를 경신하고 있음. 잠시 쉬어갈 뿐, 엔터 업종 투자 의견 유지

한 주 간 주요 뉴스

베이비몬스터 북미 공연 6회 추가

베이비몬스터의 첫 번째 월드투어가 순항 중. 최근 뉴어크, LA 공연을 성료한 데 이어 오는 8~9 월 북미 공연을 6회 추가함. 총 20 개 도시에서 29 회 공연 진행할 예정

카카오엔터 팬 플랫폼 '베리즈' 출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오는 3 월말 글로벌 팬 플랫폼 '베리즈(berriz)' 출시. 스타십엔터 신인 걸그룹 키키 등 산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들의 커뮤니티 서비스 운영 예정

봉준호 '미키 17' 중국 개봉, 한한령 완화 기대감

봉준호 감독 신작 '미키 17' 3/7 중국 전역 개봉. 한국 감독 영화로는 4 년 만에 중국 전역에서 개봉되며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라는 기대감 확대되는 한편, '할리우드 영화'로 개봉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제기됨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 의견 비율(%)

(2024.12.31 기준)